





제1회 동국 리빙랩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발행일 2019. 02.
발행처 동국대학교 LINC+사업단
기획 동국대학교 LINC+사업단
디자인 나루 narudnb@gmail.com

동국대학교 LINC+사업단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신공학관 9층
전화 02-2290-1723~30
팩스 02-2290-1731
<https://lincplus.dongguk.edu>

©2018 동국대학교 LINC+사업단
이 책의 모든 저작권은 발행처에 있습니다.

본 과제(결과물)는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서울시의 출연금으로 수행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I

교육 개요



배경 및 목적

- 지역주민의 체감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실험과 수요자 중심 사회혁신 필요
- 행정 중심의 사회문제 해결을 주민과 대학이 참여하는 해결 방법으로 전환
- 대학과 지역사회 및 기업 간 당면 과제를 해결하여 상호 간 만족하는 산학협력 성과 창출
- 현장실무형 교육기회 강화를 위해 현장 실무형 교육 추진

개요

- 교육명 : 제 1회 동국 리빙랩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 교육기간 : 2019. 1. 14 ~ 1. 25
- 교육장소 : 동국대학교 및 서울·광주·대전 등 리빙랩 우수지역
- 교육대상 : 동국대학교 재학생 12명
- 교육내용 : 리빙랩 기본 이론교육, 우수지역 현장교육, 리빙랩 프로젝트 활동 등

참여학생

No	조편성	학과	학년	이름
1	1조	정치외교학과	4	이지한
2		정치외교학과	4	배기쁨
3		정치외교학과	4	박진영
4		정치외교학과	4	박지수
5	2조	미술학부	4	김도완
6		경찰행정학과	3	황선우
7		전자전기공학부	3	김태욱
8		경영학과	4	이윤정
9	3조	미술학부	4	박신유
10		사학과	1	윤수진
11		경영학과	3	박나현
12		미술학부	4	이재희



동국 리빙랩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열흘 간의 발자취

- 기본이론교육** 2019. 01. 14~15. @ 동국대학교 원흥관 3층 i.SPACE
 - 리빙랩 이해와 사례
 - 문제해결을 위한 트리즈 이해, 실습
 -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기본역량 습득
- 리빙랩 우수지역 현장교육 캠프** 2019. 01. 16~18. @ 서울, 광주, 대전 등
 - 대전, 광주 등 지역 리빙랩 우수사례지역 탐방 및 현장 교육
 - 실제 지역 관계자들에게 듣는 리빙랩 사례교육
 - 교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배우는 실무중심 교육 진행
- 리빙랩 프로젝트 활동** 2019. 01. 21~24. @ 충무로, 해방촌 일대
 - 충무로 인쇄골목 활성화를 위한 리빙랩 아이디어 기획
 - 해방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리빙랩 아이디어 기획
 - 아이디어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작성
- 리빙랩 코디네이터 최종보고회** 2019. 01. 25.
 - 리빙랩을 통한 사회 혁신 프로젝트 결과 발표
 - 전문심사위원 평가 및 수료 진행
 - 리빙랩 포럼

01

기본이론교육



- ✓ 캠퍼스 리빙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사례 연구
-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씽킹 및 트리즈 기본 소양 교육
- ✓ 리빙랩 코디네이터 기본 역량 습득 교육
- ✓ 타지역 리빙랩 우수사례 교육

일자	시간	내용	교육장소
2019. 01. 14. (월)	13:00~13:30	교육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및 팀빌딩	동국대학교 원흥관 3층 i.SPACE
	13:30~15:30	트리즈의 이해 및 실습	
	15:30~17:00	서울지역 도시재생관련 특강	
2019. 01. 15. (화)	13:00~14:00	리빙랩 이론/사례 스터디	
	14:00~15:15	동국대학교 캠퍼스리빙랩 우수사례 특강	
	15:30~17:00	대전지역 캠퍼스 리빙랩 우수사례 특강	
	17:00~18:00	아이디어 기획안 작성	



1-1

교육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및 팀 빌딩

- 리빙랩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전체 일정 안내
- 캠퍼스리빙랩 개요 설명
- 국내외 리빙랩 우수사례 소개



1-2

트리즈의 이해 및 실습

- TRIZ를 통한 문제해결 방법
- 주어진 문제에 대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 모색
- 지역사회 문제 인식 및 해결을 위하여 창의적인 발상법 연구
- 지역사회 관련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는 실습교육 진행



1-3

서울지역(해방촌) 도시재생 관련 특강

- 용산구 해방촌 지역적 특성
- 해방촌 도시재생센터 소개
- 3년간 해방촌 도시재생 관련 성과 및 추후 과제



1-4

리빙랩 이론 / 사례 스터디

- 2016년 서울 리빙랩 프로젝트 케이스 스터디 진행
- 실제 리빙랩 사례 중심으로 팀별 케이스 스터디 진행
- 지역사회혁신 / 교육 / 기술개발 총 3개의 분야로 나눠서 각 분야별 특징에 따른 리빙랩 사례 연구



1-5



동국대학교 캠퍼스 리빙랩 우수사례 특강

- 캠퍼스리빙랩과 리빙랩의 차이점
- 대학의 역할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
- 2017, 2018년도 캠퍼스리빙랩 사례 특강

1-6



대전지역 리빙랩 우수사례 특강

- 대전 농수산물시장 리빙랩 사례
- 시장상인, 지역주민, 대학의 갈등 사례
- 대전 풀뿌리 사례를 통해 마을공동체 구성 사례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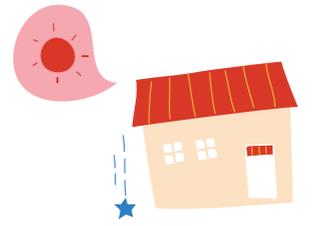


해방촌, 충무로 인세골목 사전 조사 및 아이디어 기획안 작성

- 실습 결과물로 제출할 해방촌, 충무로 인세골목에 대한 사전 조사 진행
- 이론교육으로 통한 리빙랩의 이해지식을 서로 공유
- 기획안 양식에 맞춰 기획안 초안 작성

02

리빙랩 우수지역 현장교육 캠프



- ✓ 대전, 광주 등 지역 리빙랩 우수사례지역 탐방 및 현장 교육
- ✓ 실제 지역 관계자들에게 듣는 리빙랩 사례교육
- ✓ 교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배우는 실무중심 교육 진행

일자	시간	내용
2019. 01. 16. (수)	10:30~14:00	이동 (서울-광주)
	15:00~18:00	1913송정역시장 현장교육
2019. 01. 17. (목)	10:00~14:00	광주발산마을 현장교육
	14:30~17:00	양림동 펭귄마을 현장교육
	18:00~19:00	동명동 주택가(젠트리피케이션 거리) 현장교육
2019. 01. 18. (금)	09:00~11:00	이동 (광주-대전)
	11:00~12:00	스타트업과 리빙랩 사례 특강 (대전대 안경환 교수)
	13:00~15:00	대전 농수산물 시장 리빙랩 현장교육
	15:30~17:30	대전 지하3층 청춘나들목 현장교육
	18:00~18:00	이동 (대전-서울)



2-1

1913 송정역시장

- 광주송정역 주변 도시재생 추진 배경
- 현재 추진 중인 송정역시장 사례-도시재생대학, 주민역량강화 워크숍, 주민협의체 등
- 문화 예술 창작스튜디오, 커뮤니티 예술거리 조성사업 등 문화예술 관련 도시재생



2-2

발산마을

- 발산마을의 유래
- 발산마을 청년들과 주민노인들과의 상생
- 지속가능성을 위한 발산마을의 프로그램



2-3

펭귄마을

- 펭귄마을이 생겨나게 된 배경
- 양림동문화체험관 견학
- 펭귄텃밭 등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학습



2-4

동명동 주택가 (젠트리피케이션 거리)

-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도시재생 사례 학습
- 빈 주택을 재개발없이 활용하는 사례 학습
- 주민이 직접 가꾸는 거리 조성 사례 학습



2-5

스타트업과 리빙랩 융합 사례 특강

- 창업과 연계한 리빙랩 교육 사례 학습
- 리빙랩 해커톤 결과물 교육
- 리빙랩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사례 학습



2-6

대전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

- 리빙랩을 통한 쓰레기 냄새 처리 시설 탐방
- 시장상인의 의견을 반영한 리빙랩 아이디어 구현 방법
- 앞으로의 리빙랩 프로젝트 계획



2-7

대전 청춘나들목

-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들을 위한 공간
- 공유공간에 대한 리빙랩 사례 학습
- 도심 도시재생에 관한 사례 학습



03

리빙랩 프로젝트 활동 (실습교육)



- ✓ 총무로 인쇄골목 활성화를 위한 리빙랩 아이디어 기획
- ✓ 해방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리빙랩 아이디어 기획
- ✓ 아이디어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작성

일자	시간	내용	교육장소
2019.01.21 (월)	13:00~15:00	총무로 지붕없는 인쇄소 방문(현장교육)	총무로 인쇄골목
	15:00~17:00	팀별 자유 답사 및 아이디어 기획	
2019.01.22 (화)	13:00~15:00	해방촌도시재생센터 방문	이태원 해방촌지역
	15:00~18:00	팀별 자유 답사 및 아이디어 기획	
2019.01.23.(수), 2019.01.24.(목)	13:00~15:00	팀별 아이디어 초안 발표	동국대학교
	15:00~18:00	전문가 멘토링 및 발표자료 작성	



총무로 인쇄 골목

- 지붕없는 인쇄소 방문 및 현장 특강
- 팀별 인쇄소 거리 문제 인식 및 해결책 발굴



이태원 해방촌

- 해방촌 도시재생지원센터 방문 및 해방촌 지역 도시재생 특강
- 해방촌리빙랩 활동 기업(더스페이스 프렌즈) 방문
- 해방촌 문제 발굴 및 아이디어 기획



04

리빙랩 코디네이터 최종보고회



- ✓ 리빙랩을 통한 사회 혁신 프로젝트 결과 발표
- ✓ 전문심사위원 평가 및 수료 진행 (리빙랩 코디네이터증 발급)
- ✓ 리빙랩 포럼





II

현장교육 보고서



1913 송정역시장

1913 Songjeong Market



“바꾸기 위해서가 아닌 지키기 위한 변화”

1913년 시작된 송정역시장은 그 오랜 전통을 살려 창조적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기존 시장의 특색은 가져가되, 거리나 조명, 간판, 내부 디자인 등을 현대식으로 바꾸고, 빈 점포에는 젊은 상인들을 유입시켜 신구를 조화시키고 외부인의 발걸음을 유도했습니다. 또한, 각각의 점포들이 특색있는 물건이나 음식들을 판매하면서도 통일감 있는 간판 디자인, 연도를 표시한 바닥은 시장 전체에 일체감과 스토리를 부여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송정역 시장을 보면서 낙후된 공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낙후된 것을 현대식으로 갈아엎는 것이 아닌 공간 나름의 특색과 스토리를 지키면서 현대적인 깔끔함과 아름다움을 조화시키는 변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춘 발산마을

Chungchun Balsan Village

“신구의 조화, 그 해답을 듣다”

발산마을은 과거 방직 공장으로 인해 여공들이 유입되며 인구가 늘었지만, 방직 산업이 쇠퇴하며 젊은 인구가 유출되며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을 유입시키고자 지금의 발산마을이 조성되었죠.. 카페, 식당, 공방과 같이 청년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민들이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습니니다. 시골 노인들의 눈에 도시에서 온 청년들의 옷차림이나 행동거지가 이른바 ‘불살스러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인식을 청년들도 느끼고 있었고, 이를 바꾸고자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나 청년들의 공간에 노인분들을 초대하여 함께 시작하며 조금씩 친목을 도모했고, 직접 만든 물건들을 노인분들의 집에 찾아가 선물하고 일손을 도우며 인식을 개선해나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자 노인분들의 인식도 조금씩 바뀌어나갔습니다.

사실 청년과 노인의 세대 차이로 인한 문제는 발산 마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전체적인 문제죠.. 발산마을은 이러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은 먼저 노인에게 따뜻하게 다가가고, 노인은 스스로 변화를 조금씩 인정하는 자세를 가질 때 아름다운 신구의 조화가 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양림동 펭귄마을

Penguin Village

“한 사람의 노력이 마을을 바꾸다”

펭귄마을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현재 펭귄마을 촌장님의 걸음걸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뒤뚱거리며 걷는 모습이 펭귄의 걸음걸이와 비슷했기 때문이죠.

재미있는 이름의 유래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촌장님이 마을에 끼친 영향이 큼을 담고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펭귄마을이 유명해지기전 이 마을에는 큰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재로 인해 불타버린 마을을 복구하는데 가장 앞장 선 사람이 지금의 촌장님입니다.

그는 남은 물건들을 나름대로 배치하고 주변을 생활 속 예술처럼 페인트 등으로 꾸몄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하나 둘 모여 마을 전체가 하나의 전시관처럼 바뀌었습니다. 유명세는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었죠.

마을을 살리고자 한 촌장님의 마음과 작은 아이디어가 모여 불타버린 마을을 예술 마을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이를 보며 리빙랩 또한 어찌면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마을을 살리고자 하는 진심과 작은 아이디어가 모일 때 그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전
농수산물시장**
Daejeon Ohjung Market



“모두를 위한 시장”

대전 농수산물시장은 지자체만을 위한 시장도, 상인만을 위한 시장도, 소비자만을 위한 시장도 아닌 모두를 위한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자체, 상인, 소비자가 머리를 맞대었기 때문입니다.

냄새 정화장치, 바람 차단막이, 사람/기계 구별 센서 등이 그 결과물들이고,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계속해서 고민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전 농수산물시장의 사례를 통해 실속있는 변화를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듣는 것이 아닌, 그 공간에 관련된 모두의 입장을 듣고 서로 양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장교육 보고서

**1913
송정역시장**
1913 Songjeong Market

전자전기공학부 김태욱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기도 했고, 이전부터 유명했던 광주 1913 송정역 시장은 사실 많은 기대를 했던 방문지 중 하나였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시장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들었는데,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동체의 공간을 새롭게 꾸며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대해 느꼈다. 이후 송정역 시장을 직접 둘러보게 되었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한산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개발 초기에 대기업의 자본이 유입되어 붐이 일어났지만, 자본이 떠나간 후 공동체가 자립할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도시재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못할 수도 있기에 프로젝트 진행 시 도시의 자립성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난 뒤 이전까지 이웃 주민들이 먹거리를 사러 오던 시장에서 성격이 바뀌어 오히려 이웃 주민들의 방문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곳의 성격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양림동 펭귄마을

Penguin Village

빈집에 불이 붙어 전소되어 흉하게 변한 마을을 주민이 먼저 나서 이제는 전국적인 관광지로 거듭난 펭귄마을에 방문하였다. 현장에 방문하였을 때 펭귄마을의 촌장님은 '촌장님'이라고 쓰여진 모자를 쓰시고는 옷장에 페인트칠을 하고 계셨다. 뭐든지 직접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이분이 모든 것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부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행동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이 다른 도시와는 차별점이었다. 비록 자본이 투입되어 진행된 프로젝트와는 달리 소규모의 마을이었지만, 그렇기에 도시 거주민들의 색이 가장 잘 드러나는 마을이었다.

청춘 발산마을

Chungchun Balsan Village

과거 수많은 여공들이 모여 살았던, 그래서 더욱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발산마을. 그러나 시대가 지남에 따라 낙후된 모습을 지우기 힘들었다. 그러던 중 이곳을 바꿔보자는 프로젝트가 현대자동차 그룹과 함께 진행되었고, 수많은 청년들이 이곳에 입주하여 살기 시작하였다. 초기 당시 어르신들에게 새로 이사 온 청년들은 외부인이었고, 처음에는 청년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청년들이 먼저



어르신들에게 다가가 식사를 대접하고, 청년들의 공간에 초대하며 친밀감과 유대감을 쌓아 나갔고, 덕분에 어르신들의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고 마을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발산마을은 기업의 자본이 빠져나간 뒤에도 계속적으로 독립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며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예술활동 및 가게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외부에 의지하기보다는 청년들이 먼저 마을에 스며들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전 농수산시장

Daejeon Ohjung Market



사전교육시간에 리빙랩의 대표 사례로 보아왔던 곳이라 이번 프로젝트 주제 선정에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기대감과 함께 방문했다. 영상에서 봤던 냄새를 찾는 센서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는 이미 완료되어 센서들은 철거된 상태였지만 음식물쓰레기 발효기나 지게차나 수레가 다가가야만 열리는 출입문과 같은

다양한 리빙랩 프로젝트들이 계속 진행중이었다. 지역주민과 기업, 대학과 연구소가 어우러져 그곳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내 고안해내는 모습이 리빙랩의 이상적인 형태로 보였다. 대전대학교가 근처에 위치한 시장의 문제점을 찾아 프로젝트를 진행했듯, 동국대학교도 인근지역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지역사회에서의 그 책임감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전역 청춘나들목

Chung Chun Nadeulmok

대전의 청년 및 여행자들을 위한 공간인 대전역 청춘나들목은 대전역 지하 1층과 3층에 위치하고 있었다. 지하 1층에서는 이미 청년들이 모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우리는 지하 3층에 위치한 공간으로 가서 담당자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오늘날 꿈을 가진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고자 할 때 이를 가로막는 수많은 현실의 벽과 사람과의 관계 등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하셨는데, 세상을 바꿔보고자 하는 자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다.

이 곳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수업들이 진행되는 동시에 시민과 연계한 문화공연도 진행되고 있었다. 청춘을 위한 공간이지만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먼저 다가가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았다. 동국대 근처에도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요람과 같은, 또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공간이 더욱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현장교육 보고서



정치외교학과 배기쁨

1913 송정역시장

1913 Songjeong Market

작지만 알차다!

처음 송정역시장을 마주했을 때 들었던 생각은 ‘짧다’는 것과 ‘중심’에 위치한다는 것이었다. 떡갈비 골목이 지척이었고 KTX역은 코앞이었다. 함께 어우러져있는 아파트 단지도 독특했다.

“송정역은 이곳 주민들과 100년 넘게 함께 해 온 생활 터전입니다. 예전엔 주로 주민들이 귀갓길에 장을 보던 작은 시장이었죠.” 도시재생 지원센터 담당자분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특이한 풍경이 이해되었다. 이야기를 들은 후 보이는 세탁소, 미용실, 슈퍼, 의상실 같은 소소한 점포들이 더 정겹게 느껴졌다. 150걸음이 조금 넘는 시장에 60개가 넘는 점포들이 영업 중이라고 하니 정말 작지만 알찬 시장이다.

송정역시장의 주말 하루 평균 방문객 수는 약 5000여명. 하지만 이렇게 된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송정역시장의 도시재생사업은 기업이 주축이 되어 추진한 사례다. 현대카드가 KTX호남선 개통과 함께 1913 송정역시장을 탈바꿈한 것이다. 대기업의 홍보 전략과 디자인은 SNS를 통해 젊은 층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하루에 8000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하는 쾌거를 이뤘다. 송정역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특이한 간판이다. 각 점포의 간판과 인테리어가 일관되면서도 각자의 개성을 가져 구석구석 포토존이 숨어있다.

청년 창업과 도시재생,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면 리빙랩 협업으로

송정역시장을 걷다보면 청년들이 운영하는 스타트업이 많다. 간식부터 수제맥주까지 다양한 청년가게들이 송정역시장에서 1호점을 시작했다.

“지금 호점 수를 늘려서 체인화 된 점포가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서울에 지점이 생겨서 더 커지고 유명해진 곳도 많아요. 저희가 입점했던 10개 기업 모두 성황리에 운영 중입니다.”

창업이 요즘 트렌드지만 스타트업기업들에게 서울은 높은 월세나 대기업의 텃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이곳 송정역은 월세가 서울의 1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필요한 초기 자본이 적고, 지자체와 기업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에게 부담스러운 홍보비용도 절감 가능했다. 1913 송정역시장 사례는 청년창업과, 지방의 골목상권 살리기,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은 리빙랩 모델이다.

어제와 오늘이 어우러진다는 것의 어려움

하지만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남는다. 현대카드의 홍보 이후 송정역시장을 찾는 발길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기업 중심 사례인 탓에 주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업 본격화를 위해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주민들과 상인들의 의견일치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워 주로 창업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 물론 새로운 외부에서 온 젊은 기업인들이 활력을 불어넣는 일도 중요하지만 리빙랩의 본질적인 목표는 기존 주민과 상권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기에 큰 한계를 지닌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런 의미에서 송정역시장 개편 이후 오히려 주민들의 이용률은 줄었다는 상인들의 인터뷰는 송정역시장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보여주는 것 같아 아쉬웠다.



추운 겨울, 함께 나누며 봄을 피우는 이곳은 펭귄마을입니다

“펭귄마을? 펭귄 키우는 마을이에요?”

주중 오전계 도착해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마을 입구부터 반기는 펭귄 그림들이 궁금증을 더욱 자극한다. 질문에 바로 답하듯 ‘펭귄촌장님’ 모자를 쓰고 지나가시는 주민분의 발걸음이.....

“펭귄이 맞다!”

펭귄마을이 되기 전 동네는 버려진 집들과 쓰레기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었다고 했다. 악취는 물론이고 밤이면 무단으로 폐가에서 소란을 벌이는 사람들로 방법문제도 점점 심해졌다. 그 무렵, 펭귄마을 촌장님께서 발 벗고 나서 마을 정화작업을 시작하시면서 그곳에서 나온 쓰레기들을 재활용한 촌장님의 정크 아트도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촌장님 댁에만 설치되었던 예술 작품들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면서 어두운 골목들을 밝혀나갔고, 그 안에는 서로를 독려하는 따뜻한 말들로 빼곡히 채워졌다. 공동 텃밭 이름을 짓던 중 펭귄 텃밭에 마을 주민들이 이구동성 찬성한 이래로 이곳이 펭귄마을이 되었다는 이야기.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보듬으며 추운 겨울을 나는 펭귄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하여 펭귄마을로 의미를 발전시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 노력이 빚어낸 장관

송정역시장이 청년들의 100도씨 열정을 느낄 수 있는 CEO들의 무대였다면 펭귄마을은 누구라도 안락함을 느낄만한 37도 그 어디쯤 꾸준히 끓고 있는 노익장 아티스트들의 공간이었다. 특히 펭귄 촌장님을 비롯해 주민들이 자발적인 의지가 펭귄마을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끌어온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직접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펭귄마을은 다른 사례들이 겪는 이익다툼이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적었다. 펭귄마을이 상업공간이 아니라 생활공간인 탓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마을 정화 작업을 그 자체로 즐기면서 마을의 긍정적인 문화가 정착하게 된 것이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발생하려고해도 마을 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치는 등 펭귄마을을 지키고자하는 노력은 마을에 대한 애정에서 묻어나오는 것이었다. 작품들이 작은 골목길 하나하나에 모두 뿔어나가 마을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이 되는 장관은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관광효과 up

펭귄 마을이 유명해지면서 지자체에서도 펭귄마을과 주변 문화 유적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펭귄마을 과거 선교사들의 살았던 집들을 활용한 선교투어 부터 오랜 역사 동안 쌓인 다양한 건축 양식을 볼 수 있는 건축투어, 예쁜 야경의 야간투어까지 다양한 관광자원이 더해지면서 펭귄마을이 관광의 중심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주변에 상권까지 생기면서 자생능력도 더해가고 있다. 실제로 펭귄마을을 나서자 아기자기한 공방과 식당들이 눈에 띄었다. 펭귄마을의 예술작품에 지역 공방들이 함께 어우러져 예술특성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목표를 두고 있다는 가이드분의 기분 좋은 말씀도 들을 수 있었다.

청춘 발산마을

Chungchun Balsan Village



드립커피가서 뽕뽕다리 한 잔?

드립커피를 처음 내려보았다. 알록달록한 판잣집을 배경으로 서있는 고급진 카페가 웬말이나 물어본다면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소개하겠다. 이 카페 말고도 청춘발산마을에는 다양한 청춘 초대용 공간들이 준비해있다. 할머니들께서 주로 사실 법한 시골마을에 디스코장이었다는 청춘 빌리지가 딱하니 함께 있다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할머니들도 디스코파티의 초대 손님이라는 사실. 손녀와 할머니뻘 되는 두 세대가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원래 이곳 발산마을은 경공업이 쇠락한 후 이곳에 살던 여공들이 떠나면서 흥흥한 판자촌이었다. 가난하던 시절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라서 절제 자제를 그대로 사용해 만든 뽕뽕다리가 아직까지 남아있을 정도였고 판잣집들은 기반시설 없이 지어진 경우가 많아 도시재생 사업이 시급했다.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청춘 발산마을로 명칭을 수정하고 청년 기업가들과 청년들의 유입을 도모하면서 전혀 다른 선배 청춘들과 후배 청춘들이 한 마을에 공존하게 되었다.

환경이 아니라 문화를 바꾸는 리빙랩

새로운 청춘을 맞이했다고 해서 마을은 선배 청춘을 마을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과거 발산마을에 살았던 여공들의 꿈과 희망의 색으로 마을을 꾸몄고, 새로운 청년들의 색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배치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시한 것은 '함께'를 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었다. '가마솥 데이'나 '청춘아 발산하장'과

같은 마을 공동체의 행사를 함께 주최하고 자신의 공간에 상대방을 초대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병행했다. 그 결과 청춘 발산마을은 대외적으로도 ‘핫 플레이스’가 되었지만 내부적으로도 ‘핫’한 동네가 될 수 있었다.

사실 송정역시장과 펭귄마을 견학 후 나는 이번 리빙랩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이수자의 문턱이 아득하게 느껴지던 참이었다. 펭귄마을의 성공사례는 낮은 임대료와 지역주민간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마을에 대한 애정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잘 만들어진 자발적인 조직에게 더 나은 환경으로 힘을 보태는 것, 그게 도시재생과 리빙랩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니다. 리빙랩의 궁극적인 목표는 환경을 개선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문화를 개선하는데 있다! 이렇게 청춘 발산마을이 호통치는 것만 같았다. 물론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이수의 끝은 더 아득해져 버렸다. 환경 개선에도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문화를 새로 만드는 일이라니! 그러나 도시 재생의, 그리고 리빙랩의 필요성이 더욱 와 닿게 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현장교육 보고서

사진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정치외교학과 박지수

1913 송정역시장

1913 Songjung Market

2019년 1월 리빙랩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에 참여하면서 광주와 대전으로 리빙랩 우수지역 현장교육 캠프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리빙랩과 유사한 도시재생 과정의 다양한 형태와 지역 주민의 참여가 이끌어 낸 지역 사회의 변화들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광주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 1913 송정역 시장입니다. 2015년 4월 개통된 KTX 호남선의 영향을 받아 활성화 시도가 된 곳으로 2016년 사기업인 현대카드의 대대적인 기획과 투자가 있었던 곳입니다. 광주가 고향인 저도 2016년 이전엔 방문한 기억이 없고 이름마저 생소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투자와 청년들의 창업으로 활기를 띠게 된 곳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으로 탈바꿈하였고, 기업이 직접 투자를 했던 만큼 깔끔한 외관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투자가 대대적으로 있었다는 것의 단점이 그만큼 극명하게 보이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리빙랩은 지역 주민의 참여와 주민이 계속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속가능성이 중요한데 기업의 단기간 투자가 종료 되자 발전 가능성에 한계가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에 비하여 주목받는 지역이 적었고, 창업했던 소규모 업체들도 다른 지역에 집중하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지역 도시재생센터가 청년 창업과 문화 구역 개발로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목표를 세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고, 송정역 시장 인근의 다른 도시 재생 목표 구역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출처 : 발산마을 홈페이지

양림동 펭귄마을

Penguin Village

양림동 펭귄마을은 펭귄마을 촌장이라고 불리는 한 동네 구멍가게 사장님으로부터 시작된 곳입니다. 양림동은 광주에서도 역사가 깊은 지역으로 광주에서 선교사가 가장 먼저 자리 잡은 곳이기도 하며 오래된 가옥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낙후된 지역이었고, 불법적인 쓰레기 투기도 많이 일어났으며 많은 주택이 빈 집으로 남았습니다. 펭귄마을 촌장님은 버려지는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마을을 꾸며 나가기 시작했으며 조금씩 입소문을 타고 펭귄마을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광주 남구청도 이 지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변의 상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 구도심에서 가깝다는 지리적 특성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 시작했고, 커피 전문점이나 디저트 가게 등이 옛스러운 지역적 특성을 보고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리빙랩이나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되면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인데, 아직까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보이고 있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방문했던 다른 어떤 곳보다도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그 시작부터가 주민들이었다는 것에서 많은 영감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또한 역사적이고 고풍스러운 장소들이 아직 개발되거나 홍보되지 않은 곳이 많아 앞으로의 가능성도 많이 열어 둔 곳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청춘 발산마을

Chungchun Balsan Village

양동 발산마을은 1913 송정역 시장처럼 기업이 투자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송정역 시장의 투자 방식과는 다르게 이 발산마을이라는 곳에 들어온 청년들에게 많은 투자를 한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과거 전남방직의 여공들이 들어와 살면서 규모가 커진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직회사의 기숙사가 생기면서 서서히 생기를 잃고 현재는 노인들이 거주하는 달동네에 가까운 곳이 되었습니다. 이 곳은 역사가 깊은 마을도 아니었으며, 특색이 있는 곳도 아니었고, 무허가 주택이 많았기 때문에 토지나 건물의 문제가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곳에 들어온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마을 어르신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을 했고, 일부 어르신들은 청년들에게 반응이 좋지 않았던 어르신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마을 어르신들과 이 곳에 자리 잡은 청년들의 노력으로 마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어두운 골목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곳 발산마을은 특색이 없다는 리빙랩 상 어려움을 마을에 들어온 청년들과 원래 거주하던 지역민의 노력과 조화로 극복하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직업 중에서도 사람을 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리빙랩에서도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고 갈등을 조절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운 점인데, 이런 어려움을 서로의 노력으로 해결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느껴졌고 약간의 감동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마을을 이끌어 나갈지 가장 기대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대전 농수산시장

Daejeon Ohjung Market

대전에서 리빙랩이 적용된 장소로 방문했던 곳은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었습니다.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대전 청과라는 기업의 입장을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광주에서는 마을이나 시장에서 적용된 도시재생사업과 리빙랩을 보았다면 이 곳은 기업과 기업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적용된 리빙랩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농산물공판장은 제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항상 악취가 나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고, 판매가 되었거나 판매 예정인 농산물들과 그 농산물들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들이 부패하면서 지저분한 모습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리빙랩이 적용되면서 공판장을 이용하는 중매인들과 고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었고, 악취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스처리장과 농산물 보관 창고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곳에서는 기업이 기업의 입장만을 고수하다가 이 장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리빙랩에서 연구를 맡은 센터는 고객의 입장에서 이 장소가 생활의 장소인 중매인들의 목소리를 듣도록 타협점을 찾은 장소라는 것이 인상깊은 곳이었습니다.

대전역 청춘나들목

Chung Chun Nadeulmok

대전역 청춘나들목은 일종의 청춘들을 위한 공간 대여를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리빙랩 캠프를 진행하면서 리빙랩과 창업이라는 부분에 직접 뛰어든 분과 대화를 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사실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이 캠프에 참가한 사람들과 같이 학생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는 점이었는데 그 어려웠던 점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전에 방문했던 도시재생센터나 대학교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곳이라는 점과 청춘들에게 가장 문제되는 점 중에 하나인 공간이라는 아이디어를 활용한 것이 감명 깊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2박 3일의 캠프 기간 동안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기존에 알고 있던 곳에 리빙랩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로서는 오래 살았던 지역의 곳곳에 리빙랩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와 있는지 직접 볼 수 있어서 더욱 와 닿았습니다. 각각의 지역이 모두 다른 모습으로 다른 관점에서 도시 재생과 리빙랩의 형태를 보여주었던 것이 실제로 리빙랩을 적용해 보는 실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일차

“물음표.. 당신은 도대체..”

리빙랩 우수지역 현장교육 캠프를 떠나는 학기 중에 떠나다보니.. 학업에 대한 도피라는 생각도 들고.. 맛있는 것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나에게 있어서.. 광주라는 ‘남도의 맛고장’을 간다 생각하니 얼어 있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렇게.. 부푼 가슴을 안고 학교에 가보니..



????????????????

대형 관광버스가 있을 것이라 기대 했는데.. 소위 연예인 밴이 딱하니 대령되어 있었다. “뭘지 나 월드스타인가..?” 토끼는 상태로 있다보니.. 캠프 참가자 분들이 하나 둘 도착해 어느덧 떠날 시간이 되었고..

그렇게 우리는 '연예인 밴'을 타고 행사를 가는 연예인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광주 송정역시장으로 향했다.



‘아무말 대잔치’를 3시간 넘게 하며.. “이게 말이냐 방구냐??” “방구인 듯 얼ㅋㅋㅋㅋ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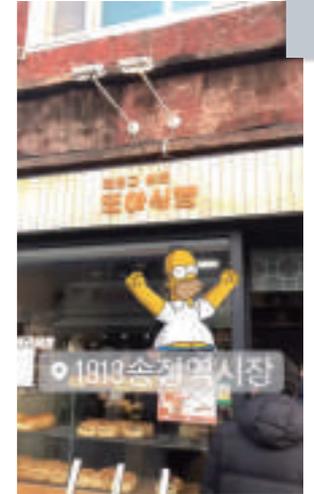
아무말 대잔치를 하다보니.. 어느덧 광주 송정역시장에 도착을 했다.



리빙랩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 송정역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대략 광주-송정역은 1913년 일제 강점기 송정리역이 들어선 이후, 호남의 교통 요지로 활약했지만, 해방 이후 광주 시내에 광주역이 생기면서 점차 그 지위를 잃어갔다. 그렇게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해지던 와중에.. KTX 송정역이 신설되고 다시금 활기를 되찾자, 낙후되었던 송정역시장은 리빙랩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따 이쁘장하구만”



빵이 진짜 맛있던 ‘또아식방’

현재 리빙랩으로 새로운 모습이 된 송정역시장은 주말이면 하루 평균 5000명 정도의 방문객이 찾을 정도로 핫플레이스가 되었다고 한다.

그 이외에도 많은 설명을 해주셨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처럼 송정역 시장을 직접 보고 느껴보기 위해 출발했다.

위에서 사투리로 말한 것처럼.. 송정역시장의 모습은 기대보다 더 깔끔하고 더 예뻐다. 전통시장의 모습과 현대 시장의 모습이 공존하며, 분위기가 아기자기해 데이트 코스로도 참 좋을 것 같았다.

또, 수많은 맛집이 한 골목에 그렇게 많다는 사실에 몰려있다는 사실도 참 놀라웠다. 이렇게 송정역시장을 만들어낸 리빙랩의 역할이 사뭇 대단하게 느껴졌다.



“광주 청춘발산마을, 그리고..”

광주 발산마을은 6-70년대 방직공장이 있던 마을로.. 원래 방직공장에 근무하시던 여공분들이 살았던 마을이었다. 그러다 세월이 흐르고 방직산업이 사장산업이 되자,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해 마을을 떠나고.. 경제사정이 열악한 어르신들만 남게 되어 마을은 점차적으로 낙후되어 갔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리빙랩이 마을에 도입되어 다양한 지원도 받고, 마을이 재정비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마을에 다시금 청년들이 돌아오며 살기 좋은 마을로 변해가고 있다고 한다.

90년대를 살아본 난, 어릴 적에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잘 지낸 기억을 갖고 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고 그런 동네의 ‘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발산마을은 그렇지 않았다. 리빙랩으로 다양한 축제와, 마을 사람 간 ‘정’이 다시금 살아났고, 그것이 시너지를 일으켜 마을이 다시금 살아났다는 사실이 사뭇 놀랍게 느껴졌다.

거꾸로 해도 대전대, 오정동 시장

오정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대전시에서 가장 큰 도매시장으로 대전내 물류 허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런 오정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리빙랩을 도입되어, 입주해있는 상인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것으로 시장을 새롭게 바꿔 나가기 시작했다. 그 불편사항들 중 가장 큰 문제였던 ‘악취’를 해결해 많은 찬사를 받아 더 많은 소비자가 오게 되었다고 한다. 또, 상인들의 불편함을 없애주는 다양한 기계나 장치들을 도입해 시장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었다. 리빙랩이 단순히 마을을 살리는 것을 떠나 사회 다양한 곳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활용성에 놀랐다.



(사진 출처 도원엔지니어링)

그런 오정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뒤로 하고, 이번 리빙랩 캠프의 마지막 도착지, 대전역으로 향했다.

대전역 역사 내 위치한 청년 공간

대전역 안에는 ‘청년 공간’ 이라는 청년을 위한 공간이 자리해있다. 이곳에선 지나가는 청년들이 쉴 수도, 다양한 작업을 할 수도 있는 복합적인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만난 담당자분은 청년 공간을 관리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고충들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주셨고, 그를 통해 리빙랩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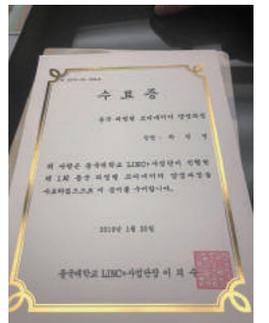
그렇게 리빙랩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서울로 가는 차에 올라타며 2박 3일 캠프의 마지막이 끝나게 되었다.



필자는 정치외교학도이다. 전공으로 정치를 배우다보니 당연하게 세상에서 발생하는 너무나 많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알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마치 내가 어벤져스에 나오는 히어로인 것처럼 그 문제들을 ‘해결’ 해야 한다는 큰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맥락에서 나에게 ‘리빙랩’이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주는 ‘학교’였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도 안됐던 나에게 ‘리빙랩’은 상당히 막막하고 갈피를 잡을 수 없던 단어였다. 그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리빙랩 캠프에 참가하게 되었다.

광주와 대전의 리빙랩 우수사례들을 직접 보고 느낀 점은 딱 하나였다. 바로 ‘리빙랩 코디네이터’라는 역할의 중요성이었다. 리빙랩은 표면적으로는 기업이나 지자체의 경제적 지원 때문에 효과적이었다고 보여 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수많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당사자들의 고충을 들어주던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더 중요했다.



리빙랩 코디네이터 ‘박진영’ ?

이번 리빙랩 캠프에 참가하고, 충무로-해방촌 리빙랩에 아이디어를 제공해 그 결과, 코디네이터 수료증을 받았다. 하지만 과연 ‘내가 광주와 대전의 코디네이터들처럼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불현 듯 든다.

광주와 대전에서 말없이 활약한 코디네이터들의 용기와 끈기 그리고 도전정신에 다시금 찬사를 보내며 글을 마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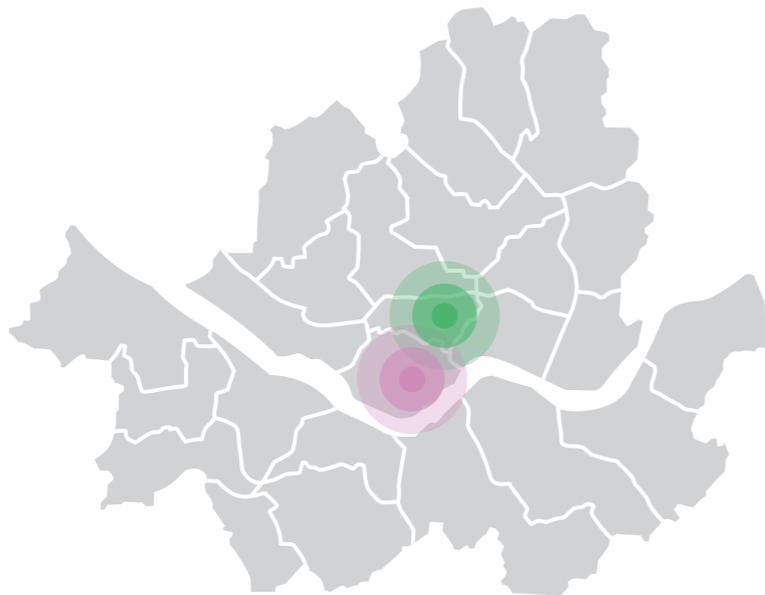


III

**리빙랩 코디네이터
최종보고서**

소중한 총무로 인쇄골목, 이용자 인식개선 프로젝트

1조
2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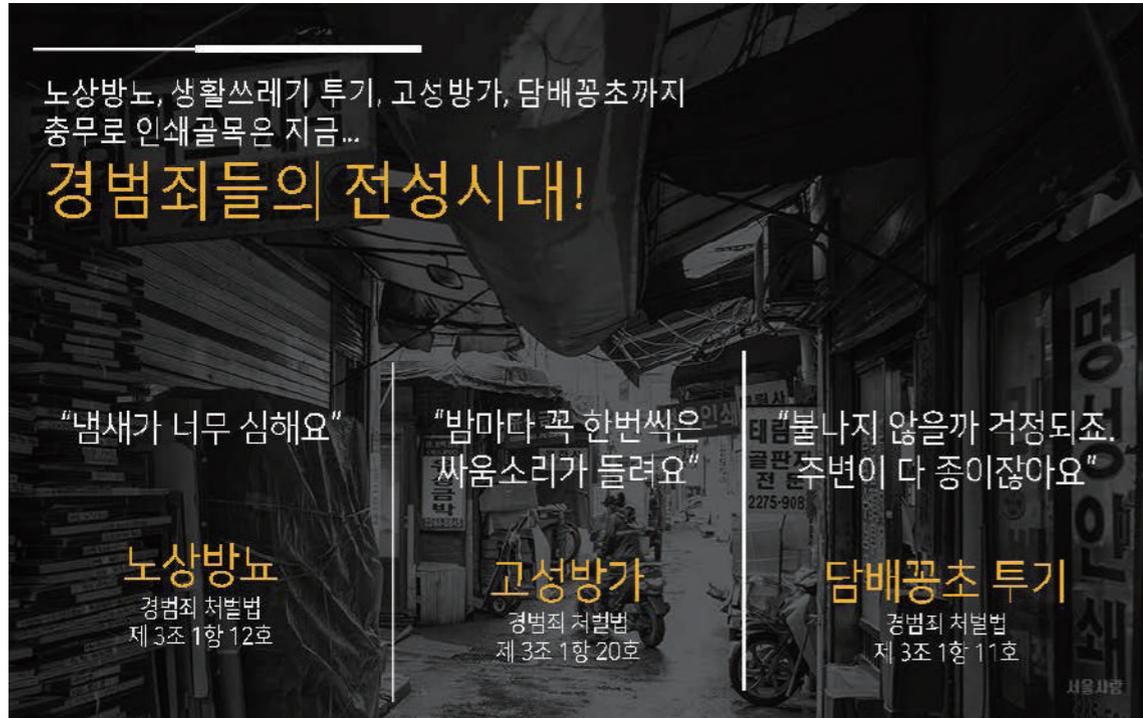


1. 지역 일반적 특성

많은 사람들이 총무로 하면 영화를 떠올리지만 사실 총무로는 을지로와 총무로, 퇴계로에 걸쳐 형성된 인쇄장인들의 터전입니다. 특히 40년 넘게 축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장인들이 운영하는 약 3000개의 업체들이 밀집되어 있어 복잡한 인쇄공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역사와 훌륭한 기술력 이면에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노후한 목조주택과 골목을 활용하기 위해 건물을 깎거나 오토바이를 개량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방과 교통에 안전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골목의 폐쇄적인 분위기와 오염된 환경 탓에 지역의 이미지를 해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발굴

팀 28.25가 생각한 총무로 인쇄골목의 다양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쇄골목에 대한 장인들의 애정부족 문제였습니다. 인터뷰 결과 인쇄골목을 활용하는 장인들이 인식하는 인쇄골목은 단지 '일하는 공간'일 뿐 '삶의 터전'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인쇄골목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달랐고, 비싼 임대료 때문에 퇴계로에 위치해있던 점포를 여러 번 옮기기를 반복하다 총무로 인쇄골목에 터를 잡은 장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배경 탓에 장인들에게 있어 인쇄골목은 오랫동안 지켜온 소중한 터전이 아니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용자들의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의 부재로 인쇄골목은 다양한 경범죄가 발생하는 우범지대가 되었습니다.



① 노상방뇨를 하는 행위

- 외부 방문객이나 식당가 손님들이 노상방뇨 주범
- 특히 밤 시간대 노상방뇨와 고성방가가 발생
- 골목 주변의 악취와 소음 공해로 인해 인쇄골목의 우범화 유발

② 담배꽂초를 버리는 행위

- 미관을 해치는 담배꽂초들
- 골목별 쓰레기통이 없는 곳이 많아 문제 가중
- 목조 주택과 인쇄지들로 인해 화재위험 가중

③ 고성방가를 하는 행위

- 좁은 골목길에 가로등 부재해 개별 상가들의 불빛에 의존 중
- 개별 상가들의 경쟁적인 간판 설치로 안전 문제 유발
- 상가를 운영하지 않은 시간대에 시야확보가 어려워 고성방가와 싸움 발생

3. 솔루션 제시

총무로 인쇄 골목은 소중한 공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문화와 역사가 숨 쉬는 공간이고, 중구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이며, 서울시에게는 유일무이한 인쇄특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인쇄골목을 아껴주어야 할 사람들은 인쇄 골목을 이용하는 장인들입니다. 이용자들이 먼저 인쇄골목에 대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소중한 인쇄골목, 경범죄 방지를 통한 이용자 인식개선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총무로 인쇄골목의 개별 화장실 실태와 노상방뇨 다발 지역

① 모두가 함께 아끼는 소중한 인쇄골목 : 노상방뇨 방지 전등 설치와 공중화장실 설치

- 장인들과 외부 방문객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중 화장실 설치
- 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밤에 효과적인 레이저빔을 활용하여 슬로건 전시
- 노상방뇨 다발지역에 슬로건을 설치하여 효과 극대화
- 슬로건을 통해 부가적인 시야확보와 미관 개선 및 우범화 문제 해결

② 모두가 함께 지키는 소중한 인쇄골목 : 담배꽂초 수거기 설치

- 좁은 총무로 인쇄골목에 어울리는 담배꽂초 수거기 설치
- 담배꽂초와 작은 일반쓰레기를 함께 버릴 수 있게해 환경 문제 개선
- 가연성 물질로부터 담배꽂초를 분리해 화재 방지

③ 모두가 함께 가꾸는 소중한 인쇄골목 : 간판 개선 및 공동 전등 설치

- 상가들의 지나친 간판 철거 및 인쇄골목에 맞는 간판을 제작, 교체
- 공동 천막을 설치하여 골목을 빗물 오염으로부터 방지
- 공동 전등을 설치하여 상가 비운영시간에도 시야확보
- 미관 개선 및 안전문제 해결을 통해 고성방가와 폭행사건 방지

4. 실행계획 & 프로세스

※ 28.25팀은 이번 동국대학교 리빙랩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에서 앞서 제시한 경범죄 방지 프로그램 중 노상방뇨 방지 사업을 중심으로 발표합니다.



[제안1] 상가 화장실을 개방형 화장실로 전환하여 화장실 공급량 조절

[대학]

- 공중 화장실 필요 지점 조사
- 개방형 화장실 전환의향 설문조사
- 개방형 화장실 강 수요 지점 조사

[지자체]

- 공중 화장실 추가 설치
- 개방형 화장실 전환자에 보상 지급
- 공용화장실 표지판 설치

① 대학

- 공중화장실 필요 지점 조사
- 개방형 화장실 수요조사 및 전환 의향 설문조사
- 공중화장실 안내 표지판 디자인

② 지역주민

- 개방형 화장실 제공
- 개방형 화장실 청결 관리 및 홍보

③ 지자체

-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
- 개방형화장실에 시설 개선 사업
- 공용화장실에 안내 표지판 설치

[제안2] 노상방뇨 다발지역에 노상방뇨 방지 로고젝터 설치

소중한 인세금목,
노상방뇨 방지를 통한
이용자 인식개선 프로젝트

[제안2] 노상방뇨 다발지역에 노상방뇨 방지 로고젝터 설치



로고젝터란?

이미지 클래스를 이용하여 길안내, 경고, 슬로건 등을 보행자에게 전달하는 야간 전용 안내문

① 대학과 지역주민

- 노상방뇨 다발 지점 조사
- 노상방뇨 방지 슬로건 백일장 개최
- 로고젝터 디자인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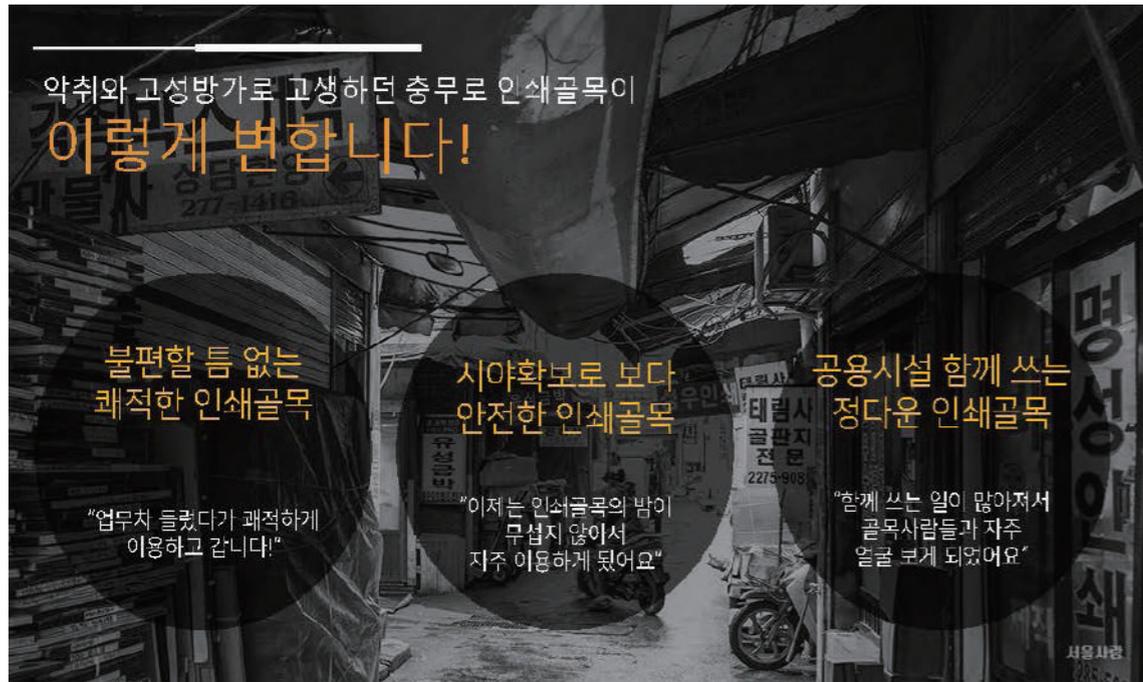
② 지자체

- 로고젝터 설치
- 시설물 유지·보수



<로고젝터 설치 예시>

5. 기대효과



① 이용자 중심 프로그램으로 높은 지속가능성 고취

‘소중한 인쇄골목, 이용자 인식개선 프로젝트’는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입니다. 장인들을 포함한 이용자들이 인쇄골목을 삶의 터전이자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체의 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따라서 리빙랩 프로그램 종료시에도 총무로 인쇄 골목이 장인들과 더불어 이용자들을 통해서 자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인쇄골목의 지역주민 접근성 강화

현재 총무로 골목시장은 주변 지역주민들과 단절되어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미래 장인들이 공부하고 있을지 모르는 동국대학교 학생들과 예비 소비자에게 둘러쌓여있지만 더러운 외관과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꺼려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리빙랩 프로그램을 통해 인쇄골목이 깨끗하고 밝은 지역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인쇄의 40년을 책임져온 인쇄골목이 앞으로의 40년도 거뜬히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응원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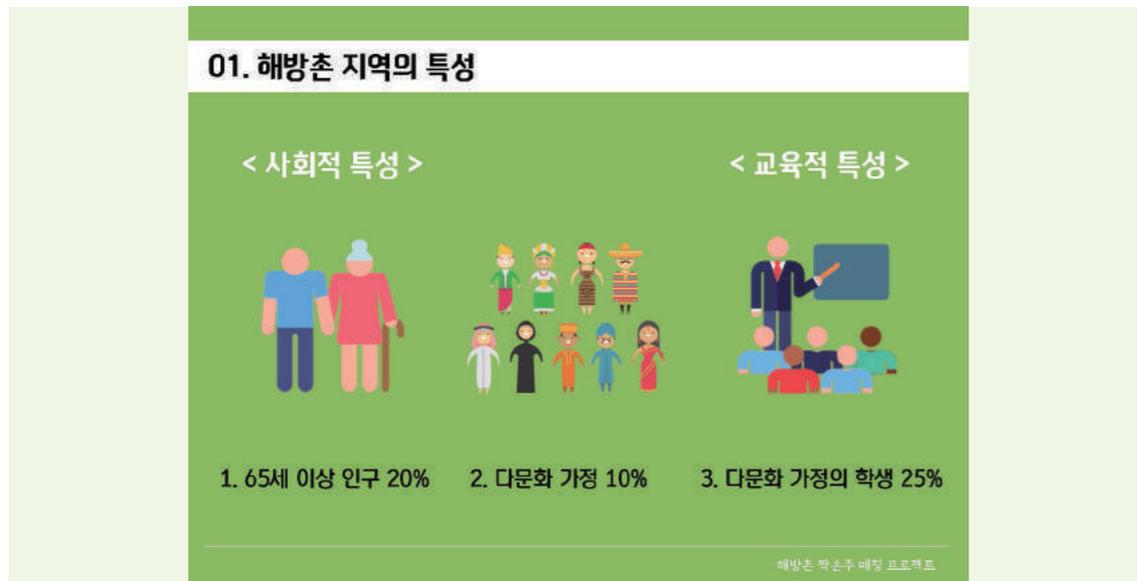
③ 인쇄 문화의 거리, 편리해진 관광지로 부상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총무로 인쇄골목은 옛 도시구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보기 힘들어진 다양한 인쇄 장비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현재는 기본적인 편의 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골목의 조명도 미흡해 관광지로 소개하거나, 많은 여행객들을 수용하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화장실과 가로등과 같은 편의 시설을 갖춘다면 관광지로써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족, 해방촌 짝손주 매칭 프로젝트

2조
화목하조

1. 지역 일반적 특성



① 사회적 특성

-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높다(외국인 가정 포함 10.8%)
-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다(20% 이상)
(사람이 중심이 되는 마을을 추구함)

② 교육적 특성

초등학교 내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이 높다 (용암초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 25%)

③ 경제적 특성

공방 산업이 지역 경제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ex.신흥시장)

2. 문제점 발굴



① 노인들

- 외롭고 심심해서 말동무가 필요하다.
- 다문화 가정, 특히 흑인 아이들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

② 다문화 가정 아이들

-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한국어 회화 능력에 비해 독해, 작문 실력이 부족하여 공교육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 해방촌 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한국인과의 교류 및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3. 솔루션 제시

03. 해결책



해방촌 짝손주 매칭 프로젝트

“또 하나의 가족”: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한국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해방촌 짝손주 매칭 프로젝트)

할아버지, 할머니 - 공방 주인(삼촌, 이모)-인근 대학생 및 중고등학생(오빠,누나) -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하나의 가족을 이루어 서로 융합되는 계기 마련.



4. 실행계획 & 프로세스



1. 매칭 : 송편 빚기 프로그램
2. 짝오빠와 친해지기
3. 짝삼촌과 친해지기
4. 짝할머니와 친해지기
5. 다함께 친해지기

해방촌 짝손주 매칭 프로젝트

① 매칭의 시작 “송편 빚기 프로그램” (1월)

짝손주(다문화 가정 아이들), 짝할머니(해방촌 내 노인들), 짝삼촌(해방촌 공방 운영자), 짝오빠(인근 대학생 및 중고등학생)이 함께 모여 송편을 빚으며 친해지는 계기 마련. 이후 프로그램 소개, 신청자 접수 및 짝 매칭 실시.

② 짝오빠와 친해지기 “방과 후 미니 학교” (매일)

짝오빠는 짝손주에게 한글 읽기와 쓰기를 가르쳐주고, 짝손주는 매일 일기와 편지를 작성.

③ 짝삼촌과 친해지기 “공방 체험 프로그램” (매주)

공방에서 일하는 짝삼촌은 짝손주에게 기술을 전수해주고, 짝손주는 이를 바탕으로 미니 작품 제작.

④ 짝할머니와 친해지기 1단계

짝손주는 짝할머니에게 편지와 일기 전달, 짝할머니는 짝손주와 함께 편지와 일기 읽기. (매일)

⑤ 짝할머니와 친해지기 2단계

짝손주는 공방에서 만든작품을 들고 짝할머니 집 방문 후 함께 식사하면서 동시에 예절 교육 진행. (매주)

⑥ 다함께 친해지기 “민속놀이 한마당” (9월)

짝손주, 짝오빠, 짝삼촌, 짝할머니가 모두 모여 팀 대항 민속놀이를 진행함. (ex. 윷놀이, 제기차기)



04. 리빙랩 프로세스



지역 주민, 지역 기업	지자체(서울시, 용산구청)	동국대학교(LINC 사업단)
위 프로세스의 지속적 참여	각종 이벤트 관리 및 참여 공간 마련(빈집 매입 등)	“방과 후 미니학교” 홍보를 통해 참가 학생 모집 및 관리

5. 기대효과

05. 기대효과



1. 지역 기업(신흥시장 공방)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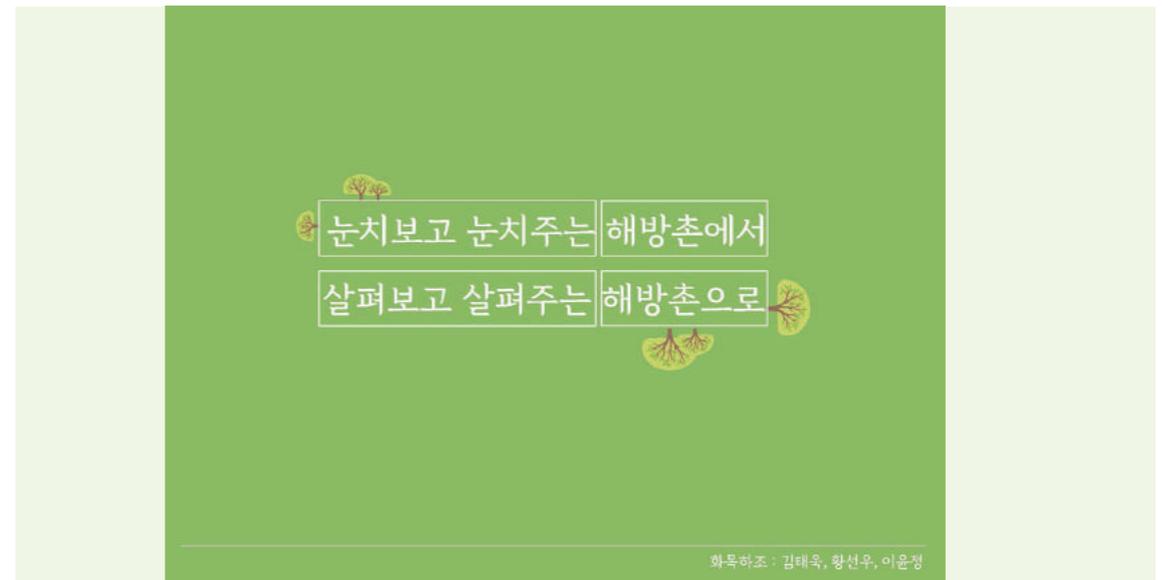
지역 기업은 공방 제품을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판매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이다. 또한, 공방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공방의 미래 인력을 양성할 수도 있다.

2. 지역사회(주민, 지자체)적 측면

지역 사회 입장에서는 지역 사회의 핵심 경제 축인 공방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세수 증대 등의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 있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의 화합을 통해 갈등의 고리를 사전에 완화할 수 있다.

3. 대학(LINC 사업단, 학생) 측면

LINC 사업단은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사업에 지원을 함으로써 대학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 학생의 경우 “교육과 다문화 가정 지원”이라는 두 가지 경험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충무로 지역문화 솔루션, ANALOG 충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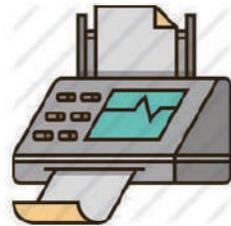
3조
Bookies

1. 지역 일반적 특성

우리가 몰랐던 '충무로'



각종 운송수단의 혼재
오토바이, 삼발이, 자전거 등



인쇄 밀집 지역
서울 인쇄 기술의 중심지
도심형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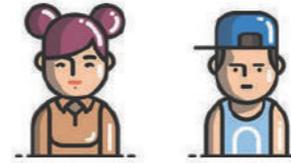
유동인구 많고 실거주민 적음

- 중구 일대는 서울 인쇄업체의 67.5%가 밀집된 인쇄기술의 중심지.
- 세운상가 주변은 조선시대부터 인쇄산업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곳.
- 출판기획, 디자인, 제본같이 인쇄와 관련된 3천여개의 업체들이 즐비하고 있음.
- 도심에 위치해있어 유동인구 많지만, 실거주민이 적음.
- 오토바이와 삼발이, 자전거 등 골목 내부에도 각종 교통수단이 혼재해있음.

2. 문제점 발굴

“인쇄산업도 빠져나가고 주민도 적은 충무로에는 지역문화를 살릴 공동체가 필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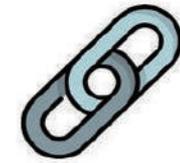
우리는 왜 몰랐을까?



젊은 층의 인식 부족

충무로 = 영화 ?

인근 동국대학교 학생들조차
낮선 충무로의 인쇄골목



인쇄산업-시민 연결고리 부재

시민들과 친밀한 관계 맺기 실패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동국대학교 학생을 비롯한 청년층의 인식 부재

동국대학교 학생들에게 충무로 인쇄골목은 가깝고도 멀다. 인쇄에 대해 충무로가 갖는 신뢰도는 상당히 높지만, 인근에 위치한 동국대 학생들조차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충무로에서 영화산업은 이미 떠났지만 여전히 '충무로'하면 영화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인쇄산업이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지역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에 친근하게 다가갈 매체가 필요하다.

인쇄산업과 시민의 연결고리 부재

충무로의 인쇄산업이 그 자리에서 지속되려면 시민과의 밀접한 관계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책은 인쇄산업과 시민의 훌륭한 매개가 될 수 있다.종이책의 자리를 e-book이 대신할 수 있게 되면서 편리성과 효율성이 높아졌지만, 무거운 종이책을 넘기며 오감을 심분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충무로는 지역의 특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충무로가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다.

불친절한 충무로

충무로 인쇄골목은 외부인들을 위한 이정표나 로드맵이 부족하다. 또한, 좁은 골목에 각종 운송수단이 혼재하여 보행자의 통행이 어렵다. 아직까지 문화공간으로 사용될 만한 부지가 마련되지 않은 점도 아쉽다.

3. 솔루션 제시



Bookies 의 Analog, Chung-mu

- 우리의 오감을 충족하는 '아날로그'와 충무로의 '충무'의 결합
- 본 프로젝트는 < M.B.D.U >, < 아날로그 >, < 보조환경 > 3가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 부족을 해소하고 충무로의 지역문화를 형성하려 한다.

Made by Dongguk University

동국대 학생들이 독립출판에 참여하여 충무로 속의 인쇄산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한다. 출판편집기획론 (캡스톤디자인) 강의와 연계하여 우리 대학 내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학생들이 글을 쓰고, 예술대학 학생들이 표지 디자인, 삽화, 사진들을 담당하여 독립출판을 기획한다. 전공이 무관한 학생들도 참여하도록 문학교양 수업에 독립출판물 제작과정을 넣는다. Bookies는 독립출판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모아 동아리를 꾸려 독립출판을 기획한다. 그렇게 기획된 출판물들은 지붕없는인쇄소를 통해 인쇄업체를 연계 받아 출판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아날로그'에 주목

충무로는 아날로그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최적화된 지역이다. 실감(實感)세대인 우리는 오감을 통해 나의 존재감을 확인한다. 일부는 오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아날로그로 회귀한다. 충무로를 책을 중심으로 한 아날로그 애호가들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책을 좋아한다면 인쇄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내기가 쉽다. 손으로 원고를 써보고, 책에 쓸 내지와 표지를 골라 나만의 책을 만들어보는 체험프로그램은 같은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역할도 가능하다.

보조환경 마련하기

거리에 픽토그램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페인팅을 하여 길바닥에 이정표를 마련한다면 충무로를 찾는 이들의 불편함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현재 별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지붕없는 인쇄소가 자리한 진양상가의 데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4. 실행계획 & 프로세스

READING LAB

Reading Lab 은 아날로그를 체험하는 충무로의 공간



소통
독립출판작가 북콘서트
인쇄 마이스터 기술 강연
마을 독서 모임
현대판 소통 = 아날로그적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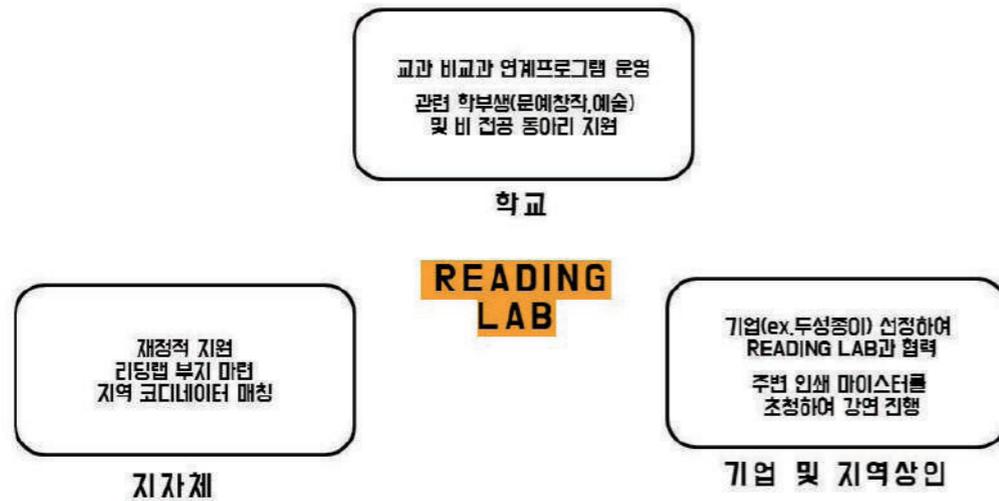


제작
나만의 책 만들기
독립출판 마케팅 굿즈 제작
직접 만들며 오감을 충족

READING LAB

- ① 나만의 책 만들기 : 책과 글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만의 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READING LAB 공간을 비롯해 충무로 인쇄골목 일대에서 모든 과정의 샘플링을 체험해보고 결정할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지닌다. 출판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개인
- ② 북콘서트 : 독립작가들을 대상으로 매월 북 콘서트를 진행한다. 독립출판서적의 홍보와 독립서적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③ 마을독서모임 진행 :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을 독서모임의 자리를 마련한다. 공간 대여를 비롯한 지원서를 검토하여 독서 모임을 지원한다. 이로서 책거리라는 브랜드 명성을 보다 실제화 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자체적인 홍보 굿즈 제작 : 참여자들의 글 중 우수작을 선정하여 글 카드와 책갈피로 제작한다. 제작한 굿즈들을 이용해 SNS기반 홍보와 차별화된 마케팅을 시행할 것이다.

솔루션 실행 프로세스



학교

- ① 교과 비교과 커리큘럼을 통해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국대학교 국어국문 문예창작과 학생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기존에 있는 글쓰기 교양수업과 차별화된 리빙랩 특화 강의를 개설한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론뿐만 아니라 'READING LAB'을 통해서 손수 나만의 책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단순 실습과의 차별성은 책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공간의 주인이 되어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 ② 교과수업 외에도 학내 동아리와 연계하는 다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 ③ 환경조성사업의 일부(픽토그램 스티커, 그래피티, 이정표 부착)작업을 학내 미술팀 및 동아리와 연계 작업한다.

지자체

- ① 사업에 알맞은 수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 ② 사업 상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보완할 지역 전문가를 연결시켜준다.
- ③ 'READING LAB'의 부지를 마련한다. 예상되는 공간으로는 세운상가 내 창업지원공간, 지붕없는 인쇄소, 진양상가의 공실 등이 있다. 새로운 장소를 건설하고 만드는 것 보다는 기존의 공간의 쓰임을 달리 하는 것이 재정적 부분을 포함하여 리빙랩과 'Analog, 총무' 프로젝트의 컨셉에 적합할 것이다.

기업 및 지역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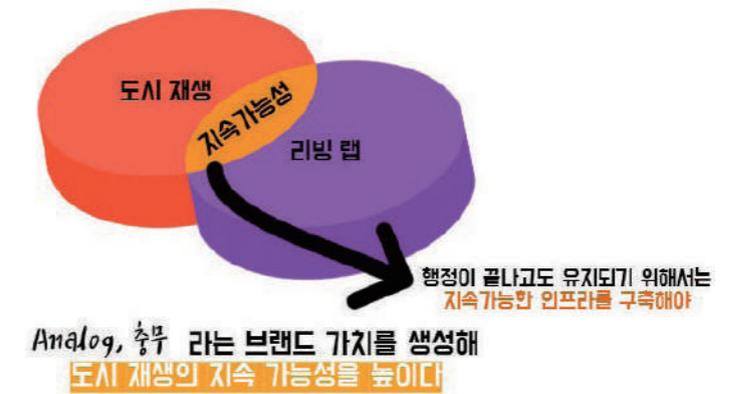
- ① 두성종이 :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종이는 기본중의 기본인 재료이다. 종이의 색과 질감을 선택하는 작업에서부터

아날로그적인 과정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인쇄골목 내에서 이러한 종이의 질감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장소로 가장 적합해 보이는 곳이 바로 '두성종이'이다. 참여자들은 종이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두성종이에 방문해 직접 고르는 방법과 'READING LAB'에 비치된 수량의 종이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두성종이와 산학협력을 맺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②주변의 인쇄중사자들 : 인쇄과정과 출판을 주제로 한 초청강연, 토크콘서트의 기회를 마련한다.

5.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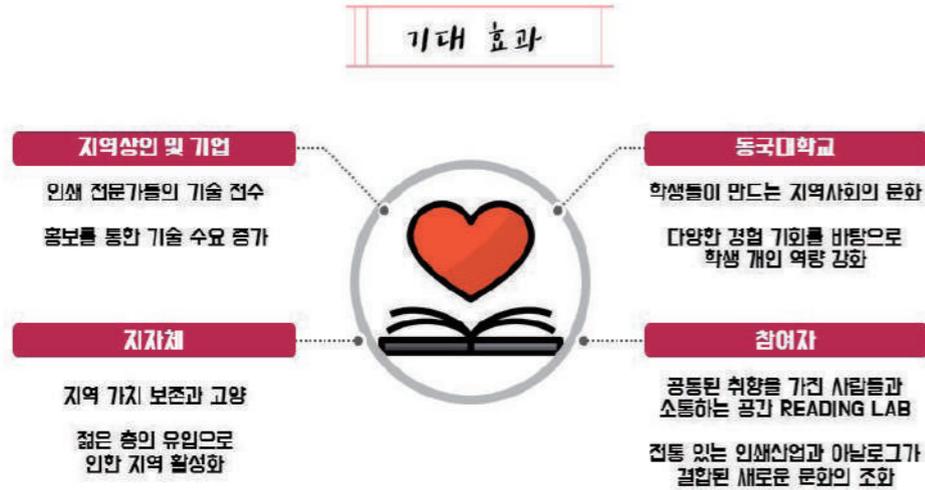
리빙랩: Analog, 총무



총무로의 인쇄골목을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기 보다는 현재 있는 것이 살아날 수 있게 스토리를 입히면 된다고 생각한다. 'Analog, 총무'가 중시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이다. 행정적 지원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인프라와 가치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한다.

문화라는 자원이 지니는 특성 상, 가시적인 것으로 남기는 것 보다 비가시적으로 남기는 것이 훨씬 많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 '책 골목 총무'라는 이미지가 생긴다면 총무로를 찾게 될 것이다.

총무로 내에 위치한 READING LAB은 참여자가 아날로그 감성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활동할 수 있다. 일반 대중이 아닌 소수 매니아층을 타겟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제작자가 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작이 이루어진 공간은 제작물만큼 의미를 남길 것이다.



지역 내 상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인쇄기술자들이 유료강연을 진행할 기회를 마련해 드린다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총무로에 책에 관련한 이미지가 형성되면 추후에 시장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해본다.

학교는 동국대학교 캠퍼스 리빙랩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교과 비교과 커리큘럼을 통한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의 운영은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우리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트렌드 창조하는 것이다. 또한 총무로에 위치한 인쇄 관련 기업과의 협력은 학생들에게 기업의 관점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인쇄장인들의 기술이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대학-지역사회/지자체-기업의 상호협력을 활용하여 총무로가 책문화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이다.

총무로가 가진 기존의 가치와 새로운 가치를 조화시킨다면, 지자체가 바라는 젊은 층의 유입과 지역 사업 활성화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구 책거리', 혹은 '총무로 책거리'라는 타이틀을 내세움으로써 지역 홍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